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13: 누가복음 - 누가복음의 특징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A. 리뷰 및 소개 [00:00-2:38]

A: AC 결합; 00:00-7:57; 그리스도의 인성/신성

환영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누구였고 바울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제 유대인이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2MJ] 때 터키 북서부에 있는 트로아스에서 픽업되어 빌립보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렀고 3차 선교 여행[3MJ]에서 바울이 그를 픽업하여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카이사레아에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누가가 아마도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불렀고 또한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가는 이 난파선 항해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사가이고, 그는 역사적인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다른 많은 기록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누가복음 1:1-4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다른 기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특히 목격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분명히 목격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마리아가 아마 그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고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특성으로 뛰어 들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성령에 대해 강조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마리아,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고, 시므온,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마도 오순절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와 방언으로 말하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40 일 후, 그 후 50일 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B.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2:38-4:44]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저는 이 두문자어 H H CDS S P P 를 통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P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두문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예수를 선한 선지자로 사랑하고, 모두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예수, 원수를 일흔 번 일곱 번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런 종류의 것을 사랑하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예수, 행복의 말씀, 산상 설교를 사랑하고, 다른 뺨을 돌려대세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인간 선지자로 사랑하지만, 예수를 신이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이슬람과 다른 종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선한 선지자로 사랑하지만 그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지어 자유주의 비평가들조차도 종종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후기 교회가 그를 신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로고스]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는 다른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루크가 하는 일, 루크가 예수의 인간성에 대해 다루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인간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가 그를 너무 신격화하고 그의 신성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인간성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다 [4:44-7:57]

그럼 여기 누가가 있고 누가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말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셨고,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았고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6피트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자랐지만 지혜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여덟째 날 할례를 받으셨을 때, 그는 이미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을까요? 당신은 “음, 그는 육신을 입은 신이시죠”라고 말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는 히브리어, 아람어, 아마도 그리스어를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글썄요, 제 추측으로는 그는 아마도

적어도 3개 국어를 구사했을 것이고, 그것이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어들을 배워야 했고, 이것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언어들을 배웠다면,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마음이 죄로 인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한 살이었을 때, 그는 성경을 몰랐고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워야 했고, 읽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워야 했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는 읽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성경을 직접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기 이해는 어땠을까요? 예수는 언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메시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을까요? 다시 말해, 그가 처음 한 살 때 태어났을 때 그는 아마도 자신의 신성과 성육신, 메시아적 특성, 그리고 한 살 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에 도달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예수를 자신의 사고방식과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의 자기 개발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아이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는 뛰어들어서 30세 또는 예수가 갈릴리에 등장했을 때의 나이가 30~32세였을 때, 우리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그가 모든 것에 대한 엄청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메시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인성 - 족보 [7:57- 10:01]

B: DF를 결합하다; 7:57-15:56; 인간과 독특한 기적들

이제 누가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한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다시 연결하는데, 마태는 그리스도가 왕임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족보를 다윗, 특히 다윗으로 다시 연결하고, 우리는 14, 14, 14가 아마도 DVD가 다윗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여 온 세상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고, 또한 왕좌에 앉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삶에 대한 관점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지만, 바울과 충분히 오래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 일부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기원전 2000년과 기원전 1000년입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이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초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가 열두 살이었을 때, 그들은 그를 바 미츠타에 데려왔고 그는 성전에 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를 두고 갔고 그는 성전에 남겨졌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열두 살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고 "이봐, 우리가 너를 찾아 사방을 뒤졌어. 어디에 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열두 살 때의 그 이야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께서 열두 살 때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줍니다.

E. 그리스도의 인간성 - 회당과 감정 [10:01-12:27]

여기에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계셨다”고 언급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계셨다.”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유대인 회당 예배에 예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관례대로 회당에 계셨다는 구절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에 가서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겠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앞잡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회당에 가셨고, 예수께서는 아마도 이 무렵 랍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매주 회당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의 삶의 습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기적으로 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회당에 갔다면, 우리도 매주 신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그의 관습대로 회당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올리브 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정말 아름다운 진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올리브 산 언덕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울었다고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들을 죽였구나.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너를 모으고자 하였으나

네가 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대한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이제 예루살렘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당신은 그의 큰 연민을 봅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세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와서 올리브 산 아래쪽 올리브 숲에 있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다룬 것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F. 뚜렷한 기적들-나인의 과부 [12:27-15:56]

이제 여기 D로 넘어가서, 누가는 우리에게 독특한 자료, 뚜렷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우리는 독특한 17개의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비유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는 그에게만 독특한 17개의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적,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8장까지는 독특한 1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8장까지의 그 부분에는 독특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만

독특한 기적이 여섯 가지 있는데,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고,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나인의 과부의 아들과 저는 이것을 살펴보고 누가 어떤 종류의 것들을 알아차리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11에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셨는데, 그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가 마을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 사람이 마을에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그를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누가 여기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보세요. 그는 이 부활 이야기를 다루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그는 죽은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녀는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여기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고, 그녀는 과부입니다. 그녀는 그 문화권에서 취약합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자가 아이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니요, 이 여자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이제 그가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보통 우리는 그녀에게 다른 아이들이 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누가 그녀를 돌보고 있나요? 하지만 주목하세요, 죽은 이 아이, 죽은 이 청년이 그녀의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과부인 어머니의 외아들을 알아차립니다.

누가는 당신에게 그런 종류의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는 당신에게 이런 특정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여기의 전체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을에서 많은 무리가 그녀와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향하여,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은 좋은 상담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죽은 아이를 찾아가서 ‘울지 마’ 라고 말하는 건 상담에서 듣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누군가가 울 때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나요? 울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울어요 . 하지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울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가가서 관을 만지시자 그것을 메고 있던 사람들이 멈춰 서 있었고, “젊은이 ,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죽은 아이에게 두 세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었지만 예수께서 다른 세계에 말씀하시며 “이봐, 저 다른 세계에서 돌아와. 이 몸으로 돌아와,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시작했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연민이에요. 예수께서 이 기적을 사용하셔서 이 젊은이를 다시 데려오셨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루크는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집어 올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세부 사항을 말해줍니다.

G. 독특한 탄생 이야기 - 목자들과 엘리사벳 [15:56-18:37]

C: GI 결합; 15:56-32:00; 뚜렷한 출생 스토리

다음은 다른 것들, 탄생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접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헤롯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그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동방박사들은 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예수에게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헤롯이 예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유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가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아마도 몇 년 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가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을 말하고, 예수가 태어났을 때 밭에 목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동에게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의 성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보아라"고 말했습니다. 미가 5:2,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들어옵니다. 목자들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탄생 이야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만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와 마찬가지로 세레 요한의 부모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막에 나가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보라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진술은 그가 사역을 한창 할 때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언급하며 그들이 세례 요한의 부모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천사가 그것을 전했을 때 믿지 않아서 충격을 받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서 아기가 그녀의 태에서 뛰놀았다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흥미로운 탄생 이야기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의 탄생과 맞물려 있고, 그들의 나이 차이가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은 나중에 참수당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알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H. 독특한 탄생 이야기-시므온 [18:37-21:38]

그리고 늙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늙은이입니다.

누가복음 2:25 이하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지만,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가복음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맞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계시하셨느니라.” 좋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기 전에 주님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는 늙은이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 뜰로 들어갔더니, 부모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율법의 관례에 따라 그를 위하여 행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여덟째 날에 가서 아들을 할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있었고 시므온은 그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당신의 종을 평화롭게 놓아주십시오.” “이제 놓아주십시오”는 실제로 라틴어 *nunc dimittis* 에 있고 , 그들은 실제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라틴어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할례를 받으러 올라오는 어린 예수를 안고 “이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이 탄생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초기 출산에 민감한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출산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의 탄생을 본 적이 있다면, 탄생과 죽음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의 탄생과 부모와 형제 자매의 죽음과 같은 나머지 인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과 탄생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인간의 사건입니다. 누가는 시므온을 통해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떠나라” 당신은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당신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위한 빛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빛이니이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예수에 대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예수가 성전에서 여덟 날 되었을 때의 이런 종류의 초기 진술을 보게 됩니다.

I. 뚜렷한 탄생 이야기: 안나 [21:38-25:23]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안나입니다. 안나는 나이든 여성입니다. 그녀에

대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 이건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입니다.
 그녀도 여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구약성경을 읽으셨고 구약성경의 여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는
 남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선지자는 어떨까요?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여선지자가 됩니다. 여선지자에 대해 물으면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사람은 사사기 4-5장의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는 라피돗 의 아내인 여선지자라고 말합니다 . 그래서 그녀는 기혼
 여성 이었고 여 선지자였으며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 그녀는
 드보라의 야자수 아래서 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이었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은 노래에서 바락과 시스라 와의 전투, 하솔 왕 야빈 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종류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유명한 또 다른 여선지자가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와 그 이후, 요시야 시대에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 훌다, 여선지자 훌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남쪽 벽을 발굴하면 벽에 세

개의 문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홀다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홀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또한 아셀 지파의 파누엘의 딸인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했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 후 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언급하셨습니까? 누가는 그녀가 과부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령의 과부입니다. 그녀는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84세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오래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막 80세가 되셨는데, 그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이 여인은 84세이고 현대 의학이 없는 그 문화권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7년 동안 결혼했고 그 모든 시간을 남편 없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84세였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경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여예언자이고, 그리스도 아기에게 말을 걸고,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멋진 것이 있고, 루크가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아기를 들어올리는 장면에서 진정한 인간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를 들어올리는 일반적인 가족에서 종종 볼 수 있고,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있는 것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들어올리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세대의 양쪽 끝을 다 보게 됩니다. 루크가 그것을 이어받고 정말 멋진 것입니다. 루크가 이런 세부 사항을 이어받습니다.

J. 유명한 누가복음의 비유들-선한 사마리아인과 탕자의 비유 [25:23-28:44]

D: JK를 결합합니다. 25:23-32:00; 누가복음 비유

이제, 우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17개의 우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우화들을 이어받았고, 저는 어떤 우화가 독특한지, 그리고 어떤 우화를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유명한 우화이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우화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분 후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잘 알려진 우화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우화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것은 유명한 우화입니다. 부자 바보의 헛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자 바보의 헛간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그는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그는 더 큰 헛간을 짓고, 신은 "야,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네 영혼이 오늘 밤 네게 요구될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했듯이, 네가 죽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계획과 더 큰 헛간을 짓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는 죽을 것이고, 이것은 부자 바보의 헛간이 헛수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탕자의 우화입니다. 60~70년대에 제 세대에 키스 그린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키스 그린은 탕자의 우화를 소재로 한 약 15분 분량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탕자의 우화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과 모든 상속 재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상속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와 함께 먹게 됩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준 돈이 있는 동안 그는 모든 재미를 누립니다. 그는 파티, 파티, 파티를 하다가 돈이 바닥납니다. 돈이 바닥나면 친구도 바닥납니다. 여기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세요. 돈이 바닥나면 친구도 바닥납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와 함께 먹게 되고 돼지 음식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와 함께 먹는다는 말이 나오고 유대인과 돼지와 함께 먹는다는 온갖 이미지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코셔가 아니고, 햄도 코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돼지와 함께 먹을 정도로 타락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
이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갈게. 아버지 집 하인들도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고 아버지는 달려나와 그를 환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그동안 충실했던 형이 질투하며 “이런 파티를 열어준 적이 없잖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환영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자주 우리만의 길을 가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이 사랑의 팔로 우리를 용서하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는데, 그는 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우화입니다. 탕자와 선한 사마리아인과 함께.

K. 유명한 비유들-과부, 나사로, 세리 [28:44-32:00]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이 과부는 기본적으로 재판관을 괴롭히고 잔소리만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잔소리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무슨 문제일까요? 잔소리는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재판관에게 잔소리를 계속하고, 재판관은 마침내 “알다시피, 저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잔소리를 하고 저를 지치게 하니, 그녀를 내 등에서 떼어내기 위해 그녀에게 정의를 베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는 전환되어 이 여자, 이 과부처럼 끈기 있게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실 것인가를 말합니다. 재판관에게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는 그 문화권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녀가 판사에게 옵니다. 판사는 그녀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녀에게 정의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예입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걸 알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큰 비유이고, 여기 또 다른 큰 비유는 나사로와 다이브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지옥의 개념과 나사로와 다이브의 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이 다이브는 이야기에 이름이 없고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다이브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로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그의 식탁 아래에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나사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난한 사람인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그에게 다이브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본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두 사람이 모두 죽어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부자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역할이 바뀌어서 부자는 이제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천국에 있습니다. 부자는 묻기 시작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잠시 후에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에게 "저것에서 물을 좀 주겠니? 내가 여기서 타 죽고 있어."라고 묻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타오르고 있고 그는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게 경고해 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옥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지옥에 대한 우화가 있고 그것은 다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우화입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내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우화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의 우화, 나사로와 부자.

다음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비유이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는 너무나 독선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리는 그의 가슴을 치며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기도라고 불리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지위에 대한 것들이 놀림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ㄴ.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32:00-34:26]

E: LP **결합**; 32:00-47:34; **예수님과 비유들**

그럼, 이런 독특한 비유와 것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비유를 살펴보고 비유가 무엇이고 비유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과 25장에서 비유를 보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17개의 독특한 비유를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우리는 상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12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은 그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를 듣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서 용서받을 수 있는 모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일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하신 다음, 이사야가 여섯 날개로 하나님 주위를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스랍들과 함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스랍들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솟을 가져다가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나와서 예언할 것이라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지만, 그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언적 전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이해되지 않는 예언적 전통에 참여할 선지자이며,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유의 기능인데, 동시에 드러내고 감추는 것입니다.

M. 비유의 네 가지 유형-비유와 예 [34:26-37:52]

이제 우화를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우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우화는 거의 은유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은유란 무엇일까요? 은유는 한 영역과 다른 의미적 영역이 있을 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당신은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나무와 어떻게 같을까요? 그는 계절에 열매를 맺고 "그의 잎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무와 같으므로 은유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으며, 이 둘은 은유적인 방식으로 관련됩니다. 우화는 이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비유적 우화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땅에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가지에 등지를 틀죠. 이 큰 식물은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 자랍니다.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같고, "그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에서처럼 "같다" 또는 "처럼"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유형의 은유적 구성입니다. 비유는 "같다" 또는 "처럼"을 사용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유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짧고, 왕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점에서 거의 한 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예시 이야기입니다. 예시 이야기는 비유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 마치면 나가서 당신도 똑같이 하라. 다시 말해, 이야기의 주인공을 데려다가 그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라. 이야기의 주인공을 데려다가 가서 당신도 그와 똑같이 하라.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저는 실제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비유를 예시, 모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 이야기의 모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타당합니다. 그는 길에 누워 있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이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는 와서 구타당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그는 혼혈종, 쓸모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더럽고 냄새 나는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구타당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연민을 가졌으므로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데려가 상처를 싸매고 여관으로 데려가 여관 주인에게 “당신이 그를 돌봐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갚을게요. 그가 낫고 갈 수 있게 되면 돌아와서 갚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메시지는 무엇 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의 이웃이므로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당신은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되어 그가 한 일을 하십시오.

N. 네 가지 유형의 비유 - 본유적 비유와 우화적 비유 [37:52-43:34]

이제, 비유가 있는데, 제가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고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말하고, 본보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가서 똑같이 하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무언가를 말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가서 결혼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을 결혼 잔치에 초대하지만 모두가 돌아오고, RSVP가 돌아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의 결혼 잔치에 가고 싶지 않고, 우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야, 큰길과 골목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혼인 잔치에 데려오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이 이 혼인 잔치와 같고 아들이 결혼해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를 쫓아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서 똑같이 하는 종류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는 큰길과 골목길로 나갈 것입니다. 노숙자,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형적인 비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마지막 으로, 이 우화 유형이 있습니다. 우화 유형과 우화 유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화 유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8장인데, 마태복음 13장과 평행을 이룹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동안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그것이 우화인 이유입니다. 우화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같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화 이야기는 한 가지 요점에 집중합니다. 우화 우화는 실제로 여기에서 전달하는 네 가지 다른 것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씨앗을 던졌는데 길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졌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낚아채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새들이 그것을 낚아채는 것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침투하기도 전에 낚아채갔습니다. 그들은 힘든 길에 있었고, 새가 그것을 낚아채서 전혀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종류의 씨앗이나 흩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흩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다른 종류의 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길에 떨어지고, 새가 그것을 낚아채고, 악한 자가 그것을 낚아채고, 다른 씨앗은 바위에 떨어지고, 바위가 많은 흩에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많은 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흙이 조금 있는데 밑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가 자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타버리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 식물은 수분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식물은 죽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며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가 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가 비추고 내리칩니다. 그들은 시들고 시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바위가 많은 토양입니다. 그런 다음 비유를 알고 있고, 일부는 잡초와 가시 사이에 떨어지고 자라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지만 가시와 잡초가 그것을 질식시키고 죽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예수가 가시와 잡초가 부의 속임수,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 이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것들이 익사하여 메시지가 죽고, 이 세상의 즐거움의 잡초와 가시에 의해 질식되어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토양은 농부가 자신의 토양을 뿌리고 그 중 일부가 좋은, 좋은 토양에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잡초가 없고 씨앗은 원래의 60, 80, 100배를 생산하고 그것이 좋은 토양에 닿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토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네 가지 다른 종류의 토양이 있고 그것이 우화 유형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우화가 아닙니다. 제가 우화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이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나 그런 비슷한 것,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다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화인 우화 이야기이므로 네 가지 다른 종류의 토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하지 않고 메시지 측면에서 다양합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우화의 모습인데,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며, 단순한 예시 이야기, 왕국의 우화 이야기 또는 무엇이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제 메시지가 있는 우화적 이야기로 간주됩니다.

P. **우화의 과장법** [43:34- 47:34]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우화에 대한 전체 과정을 수강했을 때, 우화는 매우 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매우 흔한 일들입니다. 그 논의에서 빠진 것 중 하나는 우화가 실제로 과장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이고, 이런 것들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항상 역사적으로 정확한가요? 글썄요, 항상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요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청중에게 왜 이것을 말하는지 요점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 속의 특정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과장합니다. 청중이 있고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꾼은 청중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고든 칼리지에 재즈를 연주하는 그레이엄 버드 박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재즈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뛰어난 언어학자이며 컴퓨터 전문가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는 재즈를 연주할 때 Amazing Grace와 같은 것을 연주하고 갑자기 "이거 봐"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전적인 청중을 가지고 있고 고든 칼리지 사람들은 더 고전적이고 고상한 유형입니다. 갑자기 그레이엄은 고전적인 스타일, 베토벤이나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Amazing Grace를 연주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주하지만 여전히 Amazing Grace입니다. 곡조를 들을 수 있고 그는 더 복음적인 교회 설정으로 들어와 갑자기 그는 복음 설정으로 Amazing Grace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풍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즈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루이지애나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재즈 버전의 Amazing Grace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항상 Amazing Grace이지만 연주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 청중에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압니다. 좋아요, 청중이 하나 있고 한 가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음, 여기서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예를 들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소작인의 우화를

사용하거나 실제로 두 가지 우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1천만 달러를 빚졌고 1만 달란트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1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이 사람에게 1천만 달러를 빚졌고 그는 주인에게 와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좋아요, 가도 됩니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000만 달러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10달러를 빚진 사람이 생겼고, 그는 그 사람에게 10달러나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전화해서 “이봐, 내가 너한테 1천만 달러를 용서해줬는데, 이 사람에게 뭘 한 거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1천만 달러, 실제로 1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1천만 달러와 100달러 사이에 과장이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과장한 거야. 과장된 사고방식이라고 해. 뭔가를 강조해서 분리를 보여주고, 이야기의 요점을 강조하는 거야. 우리 모두 그런 짓을 해. 내가 우리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과장이고, 과장은 “모두”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야.

Q. 사악한 소작인들의 우화 [47:34- 50:52]

F: QT를 합치십시오; 47:34-61:15; **선택된 비유**

또 다른 생각나는 비유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농부와 악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땅 주인이 밭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합니다. 이들은 악한 소작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21장에 나옵니다. 그는 그 재산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합니다. 이제 수확기가 되어서 밭 주인이 소작인과 임차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은 그의 땅을 임대합니다. 그는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의 종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그의 종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더 나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들은 나가서 이 소작인 농부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았을 때 실제로 그들을 때리고 그들 중 일부를 죽입니다. 그가 보낸 이 사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재산을 소유한 농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내 아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보내서 이 임차인들에게서 임대료를 거두게 합니다. 임차인들은 "이제 우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상속 재산을 차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땅을 임대하는 주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글썄요, 그는 군대를 모아서 아들을 죽인 자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임대하는 농부가 하인들을 보내서 때리게 한 다음 아들을 혼자 보내서 이 자들을 마주하게 할까요? 아니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하인들을 때린 후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과장된 측면입니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의 과장입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미쳤을까요? 신입니다. 신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의 종들은 누구인가요? 구약성경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주님의 종들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며칠 동안 정화조에 갇혔습니다. 그는 진흙 속에 빠져 거의 죽을 뻔했지만 걸레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때려눕혔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둘로 잘렸을 것이고, 세레요한은,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세레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소녀의 춤과 딸에 대한 어머니의 질투심 때문에 목이 잘렸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만큼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들어맞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인간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R. 묵시록의 우화들 [50:52-53:38]

비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종말론의 본질입니다. 종말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었지만 실제로 논평한 적은 없습니다. 종말론 문학은 대체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성경을 읽는다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종말론 문학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화 *Apocalypse Now*를 보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리즈 *Left Behind*를 읽었는데, 환난 기간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종말에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을 날려버리는 운석이나 무언가에 매료되고 바퀴벌레만이 살아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은 비유는 종말론적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고 인류에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무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양과 염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며 그가 하는 일은 양과 염소를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에게 그는 "내가 배고프니까 내 왕국으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먹이고 찾아왔으니, 내 왕국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염소에게 "내가 배고프니까 먹이지 않았고, 갇혔을 때 찾아와 찾아주지 않았으니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는 세상 끝에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것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우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화들은 선과 악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이런 종류의 종말론적, 이분법적 또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선과 악은 함께 있고 섞여 있으며 그것이 우리 세상의 기만의 일부입니다. _우리는 누군가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종말론적 사고에서는 선과 악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세상의 종말이라는 맥락에서 일어나므로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며, 예수께서는 이에 대한 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부자와 나사로는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구덩이를 가로질러 이런 담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말의 일종입니다. 모든 우화가 종말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우화가 종말론적입니다.

S. 유대인의 우화들-나단이 다윗에게 [53:38-57:17]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비유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확장된 은유에 기초합니다. 이 은유적 사고는 두 가지 다른 의미 영역 또는 의미 영역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비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비유가 있습니다 .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밋세바와 음행을 저지른 직후입니다. 밋세바와 음행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밋세바의 아내였던 헛 사람 우리아가 불러잡니다. 그는 다윗이 아내에게 가도록 하는 계략에 따르지 않아 다윗이 음행으로 들키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했고, 그는 아이의 아버지로 들키게 됩니다. 우리아는 아내와 자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전선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죽입니다. 다윗은 정말 못된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는 왕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왕이 있고,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와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선지자들이 왕을 질책하고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나단은 어떻게 다윗 왕에게 다가갔을까요? 그는 이야기를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온갖 종류의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잠을 자곤 했고 양은 그의 팔에 안겨 잠을 잤습니다 . 그런데 다윗은 양에

대한 애착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애착을 알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는 방문객을 맞이했지만, 부자는 수백 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데려와 그 사람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의 어린 양을 데려와 그 사람에게서 온 어린 양은 그를 찾아온 부자의 친구에게 유일한 양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가 나서 “부자야, 그 짓은 악했고, 그는 벌을 받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단이 무엇을 할까요? 나단은 “다윗,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양을 가진 부자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은유입니다. 양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내가 많습니까? 다윗은 아내가 많습니다. 다윗은 부유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서 이 모든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는 가서 헛 사람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한 명뿐이었던 그 불쌍한 남자를 데이비드가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유를 은폐의 수단으로, 다윗을 꾸짖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다윗에게 다가가서 “다윗,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는 다윗을

사로잡고, 다윗은 “오,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에게 그런 짓을 한 그 부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윗은 떠납니다. 보세요, 그는 사로잡혔고, 그 이야기는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 우화적 해석-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거스틴 [57:17-61:15]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야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코미디언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코미디언입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 코미디언일까요?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신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와서 명제나 논리로 “글쎄, 당신은 신에 대해 이것을 추론할 수 있고 신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영이며 지혜, 권능, 거룩함의 존재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는 내려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 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이 논리로 작업할 때 당신은 흑백 그림으로 작업하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이야기는 색상과 더 비슷합니다. 깊이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온갖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만 안다면 예수님만 우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선지자들이 우화를 말씀하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사실, 유대인 랍비들은 탈무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유대인 자료를 보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들이 유대인 우화를 말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초기 교회는 사물을 해석했고, 저는 단지 서기 400년이나 500년경의 어거스틴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취했고, 어거스틴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와 그가 말하는 것은 피해자, 강도에게 구타당한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음, 그가 그것을 어디서 얻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타한 강도는 악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악마는 이 사람을 구타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강도에게 구타당한 아담이었고, 강도는 악마였습니다. 반대편을 지나간 레위인은 구약의 사역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는 가난하고 구타당한 남자를 여관 주인에게 데려가서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는 뭐든지 갚을게요."라고 말합니다. 여관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은 여관 주인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원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셨을까요? 결코 언급되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우화에 나오는 여관 주인입니다. 어거스틴은 본문에 근거가 없는 이런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화적 해석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런 종류의 우화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네 발로 걷는 우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래로 내려가 모든 세부 사항이며, 그것이 모든 세부 사항에 어떤 종류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요점입니다. 문제는 그런 우화를 우화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요점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무도 우화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우화적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네 가지의 해석 방법을 갖고 있는데, 역사적, 언어학적 방법에 기반한 방법 중 하나로 사물에 접근하는 더욱 우화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U. 19 세기 **비평** - **반응** [61:15-63:00]

G: UW **결합**; 61:05-71:05; **우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가 우화를 다루었을 때 , 그것은 우화가 우화를 네 발로 걷는 우화적 접근 방식에 반발한다고 말하는 19세기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화적 접근 방식은 19세기에 우화에 나오는 모든 것에 약간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들은 “그건 옳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우화에 하나의 요점이 있다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 우화에는 하나의 요점이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살펴볼 때 큰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설교자도 많고, 사실 그것은 21세기에 우리의 짧은 주의력을 감안할 때 좋은 방법론이지만, 여러분은 하나의 큰 아이디어를 얻고 모든 요점을 그 하나의 큰 아이디어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은 이 하나의 큰 아이디어를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이야기로 설명하고, 성경으로 설명하고, 현대에 설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의 요점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들은 우화를 들고 우화는 하나의 요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하나의 요점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그 우화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제 생각에 그것이 약간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토양에 대한 우화에서 네 가지 다른 유형의 토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의 요점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우화의 진짜 요점은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사물이 있고 그 네 가지 다른 유형의 토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환원 주의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화는 환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너무 많이 곱하고, 19 세기 모델은 우화가 단 하나의 요점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환원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V. 종말론적 우화와 실현된 종말론 [63:00-65:39]

이제 종말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종말론적 우화와 구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의 끝에 양과 염소의 우화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의 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열 명의 신부 들러리를 기억하세요. 열 명의 신부 들러리가 왔는데, 다섯 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다섯 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지 않은 다섯 명은 기름과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떠났고, 그들이 간 사이에 누가 왔을까요? 신랑이 왔고, 결혼 파티가 왔고, 그들은 들어갔고,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은 다섯 명은 찾아다녔고, 그들은 갇혔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열 명의 신부 들러리의 우화인데, 다섯 명은 지혜롭고 다섯 명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로 2차 세계 대전의 본질에서 나왔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동을 취하고 마침내 악을 없앨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끝났고 악이 진압되었으므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현된 종말론에서 당신이 가진 것은 인간이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충분히 선해지고 마침내 우리는 너무

선해지고 모든 것이 너무 잘 풀려서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그를 위해 준비된 왕국 위에 이 왕국을 세우고 이 모든 선한 사람들이 이 모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종말을 가져오고 미래를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세상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종말을 가져오는 다른 종말론적 접근 방식과 종말론적 문학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과 종말론 사이에 제가 만들고 싶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Eschaton"은 마지막 날,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선함이 종말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반면 종말론은 하나님이 종말을 가져오고, 저는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종말, 결론을 가져오신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비유는 풍부하고, 비유는 풍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종의 절충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W. 예수 세미나 [65:39-71:05]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세미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세미나는 대체로 제 세대인 1970년대, 80년대, 90

주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저는 그것을 했고, 그것은
 괜찮았고 우리는 빨간색 글자 구약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예수의 말씀, 그들이 말한 예수의 실제 말씀, 그리고 그런데, 많은 경우 비유
 , 이것이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비유를 예수에게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유를 예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준에서 그들은 *ipssissima*를 가지고 있습니다. *vox* ,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 이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넣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가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말씀하신 것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머, 방금 당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고 그녀가 한 말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단어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음, 누가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고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들은 그것을 분홍색으로 칠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빨간색을 가질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실제 말씀이 될 것이고 분홍색은 예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몇 가지 다른 범주와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비슷한 아이디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아이디어지만 예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였고 이것은 회색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간색, 분홍색, 회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것과 비슷하지만 단어와 아이디어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것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 단어, 그들이 검은색으로 남겨둔 것은 예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고 나중에 교회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교회는 이 단어들을 예수의 입으로 다시 넣었고 그것은 기원후 32년의 원래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후 50년이나 100년 후에 넣어졌고 초기 교회가 그의 입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는 성경을 찢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닌지 결정했을까요?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은 선입견, 사고방식, 세계관을 사용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에 대한 많은 신과 신성 주장은 교회가 놓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데려가 "그리스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대주의자였고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했다고 믿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세미나이고 20 세기 후반에 큰 일이었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텍스트로 장난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X.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맥락 [71:05-74:27]

H: UZ를 합치다; 71:05-84:10 끝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제 돌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맥락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유를 실제로 이해하는 방법은 비유가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입니다. “어느 날 율법의 전문가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맥락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는 율법 전문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돌아서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예수께서는 “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원한다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읽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이므로 율법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다른 구절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영혼으로 사랑 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때, 그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는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매우 유사한 이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이고, 그는 사물에 대한 유대인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실제로 옳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네가 옳게 대답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통 “네가 옳게 말했다”고 대답하시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통은 무언가를 비판하시지만, 여기서는 “네가 옳게 대답했다.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예수께서 “이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학자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음, 이게 저 질문보다 더 나은 질문이라는 걸 보여줘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질문을 해서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ㄱ.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74:27-77:51]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강도의 손에 걸리자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채로 두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제사장의 높은 지위에 있는 레위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는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은 그 문화권에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혼혈이었고 북왕국에서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빼앗으러 왔을 때 그들은 모든 지식인, 지위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고 이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른 문화권에서 데려온 사람들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약성경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말했듯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오경만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처음 다섯 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오늘날에도 게리심 산에 올라가면 여전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혼혈로 여겨졌고 그 문화권에서 매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운 후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두 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여관 주인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관 주인입니다. “그를 돌보아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추가 비용이 있으면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의 손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야기에서 다시 뛰어나갑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마치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저분했기 때문에 대신 그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마리아인의 특성을 따왔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특성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비유입니까? 이것은 예시 비유입니다.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를 불쌍히 여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십시오. 당신은 영생을 원하십니까?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지리 [77:51-84:10]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그저 사물을 다시 읽고 싶었습니다. 왜 변호사이고 처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리에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어와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종종 우리는 텍스트의 의미를 얻기 위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배워야 할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리학입니다. 사물이 발생한 곳의 지리는 사물이 발생한 곳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가족을

플로리다 올랜도로 데려온 적이 있다면 올랜도가 어떤 곳인지 알 것입니다. 디즈니 월드와 다양한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올랜도라고 하면 올랜도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뉴올리언스라고 하면 뉴올리언스에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스베이거스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미니애폴리스는 뉴욕시와 매우 다른 곳인가요? 워싱턴 DC는 어떻습니까? 워싱턴 DC는 보스턴과 매우 다른가요? 제가 보스턴이라고 하면 보스턴에는 무엇이 있나요? 글썬, 고든 칼리지는 보스턴 바로 외곽에 있습니다. 하버드, MIT, 고든 칼리지는 보스턴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오만함이 많고 우리가 보스턴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을 공부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실리콘 벨리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리는 여기서 큰 역할을 하므로 사회학도 작용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계층 구조와 그런 종류의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고,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이제 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리를 느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해 꼭대기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사해는 저기 위에 있고 사해 꼭대기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해는 해발 1,270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2,400, 2,500, 2,600피트입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3,000피트, 거의 4,000피트가 떨어집니다. 산의 뒤쪽입니다.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있고 사해로 내려갑니다. 모든 수분이 여기로 들어와 산의 앞쪽에 떨어집니다. 이 능선을 넘으면 올리브산은 산의 뒤쪽에 있습니다. 산의 앞쪽에 모든 비가 내리고 산의 뒤쪽은 모하 베 사막과 같은 캘리포니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사막이 될 겁니다. 여기는 유대 사막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여기서 예리코로 가는 길이 그 사람 가는 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뿐이고, 내려가면 약 20마일 동안 내리막길입니다. 추천은 하지만, 사실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고 정말 좋은 라이딩을 원한다면 올리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세요. 여기서 약 20마일 내리막길을 갈 수 있고 페달을 거의 밟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페달을 밟아야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예리코까지 약 20~30마일 구간에서 약 4,000피트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사막에 있습니다. 산적들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강도와 도둑들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사막에요. 그래서 사막 지역은, 지금까지도,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갔을 때 아들을 데리고 갔고, 거기에 수도원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사막에서 방금 나온 어떤 종류의

바로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루가 전개하는 모든 것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라는 주제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주제와 삭개오의 이야기 중 일부를 살펴보고, 루가의 지옥과 기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Lilly Heintz 가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